

德溪 吳健의 시문학 연구*

金 南 基**

차 례

- | | |
|-------------------|--------------------|
| I. 머리말 | 2. 世事の 불평과 歸去來의 지향 |
| II. 생애와 학문의 지향 | 3. 離合의 현장과 知人에의 권면 |
| III. 시문학의 양상과 특징 | IV. 결론 |
| 1. 事物의 인식과 存養의 자세 | |

I. 머리말

德溪 吳健(1521~1574)은 精讀과 思索, 窮理와 居敬을 위주로 한 自得之學을 학문의 요체로 하면서도 南冥 曹植, 退溪 李滉 등 당대의 名儒에게 수학하여 높은 학문의 경지를 이룩하였으며, 經史子集을 섭렵하여 講論과 詩文으로 명성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학문과 경륜을 바탕으로 하여 公道의 실현과 文治의 구현에 힘을 쏟았으며, 후학 양성에 주력하기도 하였다.

오견에 대한 연구는 생애와 교유 양상을 중심으로 하여 그의 정치 및 교육 사상, 한시 세계에 대하여 고구하였다.¹⁾ 이들 선행 연구를 통하여 오견의 생애,

* 이 논문은 2004년도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남명-2004-07)

** 서울대학교 규장각 책임연구원.

1)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崔喆鉉의 『吳德溪의 生涯와 思想』(경상대 교육대학원

사상의 특징과 위치 등이 상당 부분 해명되었으나 아직 그의 문학 세계의 기저와 의미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오건의 문학과 관련한 논문으로는 양기석의 석사학위논문이 선편을 잡은 이후로 연구 성과가 거의 진척되지 않았다. 양기석의 경우 오건의 시세계를 ‘安分觀照’, ‘自我省察’, ‘憂患意識’으로 분류하고 이와 관련된 작품을 분석하였으나 시세계의 토대와 형상화 방법, 작품의 창작 배경과 의미, 문학사적 위상 등을 정치하게 구명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오건이 시문학 중에서 賦가 차지하는 위상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그의 생애의 경우에도 師承과 교유한 인물과의 관계를 평면적으로 서술한 측면이 없지 않다. 또한 오건의 작품은 대개 창작 시기가 불명확하다. 시문의 경우 편년의 방식에 의하여 수록되었지만 시기를 명기한 작품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전후 관계를 고려하여 가능하면 창작 시기를 밝히고자 한다.

본 논문은 선행 연구의 성과를 수용하는 한편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확충하기 위하여 덕계 오건의 교유와 시문학의 양상 및 특징 등을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건이 조식과 이황의 문하를 출입한 學人임을 주목한다면 그의 문학 세계의 형성과 특질, 나아가 문학사적 의의 등의 해명은 16세기 영남학파의 문학론과 문학세계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조식, 이황, 김인후, 기대승, 노진, 구사맹, 김경로, 하항, 배신 등 당대의 명유와 교유하며 학문에 대하여 토론하고 시편을 주고받았다. 먼저 이들과의 학문적, 문학적 교류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오건의 문학 세계의 저류를 구명하고, 동시에 그가 쓴 상소와 장계 등을 통하여 당시의 정국 상황과 대응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오건은 시형에 있어 절구, 율시, 배율, 고시 등 각체에 능하였으며, 시세계도 유

석사논문, 1985), 崔海甲의 『吳德溪의 政治思想』(『晉州文化』 제8호, 진주교육대학, 1988), 梁基錫의 『德溪 吳健 漢詩 研究』(경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吳珪煥의 『德溪 吳健의 人間像』(『南冥學研究論叢』 제2집, 남명학연구원, 1992), 韓相奎의 『德溪 吳健의 선비精神』(『南冥學研究論叢』 제2집, 남명학연구원, 1992), 李貞淑의 『德溪 吳健의 教育思想 研究』(한국교원대 석사논문, 1993), 李相弼의 『德溪 吳健의 『歷年日記』 小考』(『南冥學釜山研究院報』 7집, 남명학부산연구소, 1997), 金康植의 『德溪 吳健의 학문 경향과 현실 개혁 방안』(『朝鮮時代史學報』 20집, 조선시대사학회, 2002), 史載明의 『조선중기 德溪文人의 形成과 講學』(『南冥學研究』 17집,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04) 등을 들 수 있다.

람시, 교유시(차운시 포함), 만시, 영물시 등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5편의 賦의 경우에는 성리학에 대한 조예와 관물의 태도를 잘 드러내고 있다. 그의 詩賦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문학의 전개 양상과 특징, 문학사적 의의 등을 해명하고자 한다.

II. 생애와 학문의 지향

吳健은 世紀와 八莒都氏[訓導 永康의 딸]의 아들로 1521년(중종 16) 4월 2일 경상도 山陰縣 德川里 집에서 태어났다. 그의 유년 시절은 평탄하지 않았다. 1526년부터 부친께 『大學』과 『論語』 등을 배웠으나 그가 11세 되던 1531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이후 1534년 조모 鄭氏, 1536년 조부 軾, 1544년 어머니, 1545년 繼祖母 石氏의 喪을 연달아 당하였다.²⁾ 이런 불행한 가정사에도 불구하고 그는 틈틈이 학문에 전념하는 한편, 평소에 孝友를 실천하였다. 선천적으로 효성이 지극한 데다 여러 차례의 상을 극진하게 치러 1549년(명종 4) 임금께서 그 효행을 가상하게 여겨 復戶하였다.³⁾ 그리고 연달아 상을 치르느라 28세 되던 1548년이 되어서야 혼인을 하게 되었다. 당시 산음 현감 柳公緯이 오건의 뛰어난 학행을 알고 혼인을 주선하여 進士 光의 딸 星州李氏와 혼례를 치르게 되었다.

집안의 불행이 잇따르자 숙부 世綱과 외삼촌 都良弼에게 공부를 배우는⁴⁾ 한편 淨水庵에서 독서에 전념하였다. 이때 그는 『中庸』·『周易』 및 經史 등을 익

2) 오건은 1558년 10월 식년시에 급제한 뒤 부모의 무덤을 찾아 제사를 올리면서 지은 <榮墳祭文>(『德溪集』 권2)에서 아버지의 가르침과 어머니의 은혜를 기리며 슬퍼하였다. 이하 출전이 『德溪集』인 경우 문집명은 생략하고 제목과 권차만을 적는다.

3) 『明宗實錄』 권9, 명종 4년 4월 30일(己巳)조 기사.

4) 오건은 <祭叔父文>(권2)에서 숙부 世綱의 은덕을 “父母既亡，誰恃誰怙，幸賴叔父，出入依戴，開余昏憤，警余趨走，得免禽犢，實賴其賜。”라 칭송하였고, <祭都生員文>(권2)에서 외삼촌 良弼의 훈육을 “一親一師，恩義兼斯，恩則同母，義則受業，身忝骨肉，命奇險阨，年纔十齡，慈父見背，學乏家庭，氣拘蒙昧，不有叔兮，誰教誰誨”라 칭송하였다.

히는 한편 九拙 梁喜(1515~1580)를 좇아 經訓疑義를 논하고, 玉溪 盧禎(1518~1578)과 교유하였다. 1551년 오건은 그의 삶에서 중요한 스승인 曹植(1501~1572)을 德山에서 배알한 이후 1564년 德山寺, 1565년과 1566년 智谷寺에서 뵈고 배웠다. 조식은 오건에게 학문 뿐만 아니라 出處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한 스승이었다. 조식은 오건에게 편지를 보내 벼슬에서 물러나 도를 행하도록 권면하였고,⁵⁾ 오건은 스승의 말을 좇아 말년에 낙향하여 후진들을 양성하는 데 힘을 쏟았다.

1551년 가을 진사 初試, 1552년 봄 진사 會試에 합격하여 1556년 성균관에 입학하여 학문에 매진하였다. 그리하여 38세 되던 1558년(명종 13) 10월 식년시에 丙科로 급제하였다. 이때 高敬命·奇大升·尹斗壽·鄭惟一·具思孟·黃廷彧·鄭琢 등 35인이 동방급제하였다.⁶⁾ 이들과의 인연은 오건의 학문과 삶에 큰 자양분으로 작용하였다.

문과에 급제한 이듬해인 1559년 정월 성균관 權知學諭로 임명되었다가 星州 訓導로 부임하였다. 1560년에 이황의 문인인 黃俊良(1517~1563)이 성주목사로 부임하자 함께 朱子書를 강론하는 한편 유생들을 훈도하였는데, 이때 鄭述(1543~1620)가 從學하였다. 황준량은 학문적 동지로서 뿐만 아니라 후일 이황과의 만남을 연결하는 등 그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562년 여름 병으로 성주 훈도를 사임하고 귀가한 이후에도 황준량과 『心經』, 『啓蒙』에 대하여 왕복 문답하였다. 1563년 陶山에 머물던 이황을 배알하여 『心經』, 『近思錄』, 『朱子書節要』에 대하여 질문하고, 동시에 『延平答問質疑』를 기록하였다.

1564년 5월 성균관 學諭에 임명되었고, 11월에 昭略署洞에 거처를 마련하였다. 이듬해 學錄으로 中學教授를 역임하고, 9월에 병으로 사직하고 환향하였다. 이때 姜翼·林希茂·盧禎·鄭復顯·趙宗道·李擎柱 등을 만나 換鵝亭·智谷寺·東山寺 등지를 유람하는 한편 『延平答問』, 『朱子年譜』, 朱子書 등을 강론

5) 曹植, <答吳子強裴景餘書>(『南冥集』 권2). “吾於景餘則勸之進, 子強則挽而退, 祿仕與行道, 固有異也. 但吾擬子強, 毋亦望之太重耶?”

6) 戊午式年榜 35인은 高敬命, 朴栗, 任夢臣, 奇大升, 金景憲, 沈錡, 鄭淹, 韓孝友, 李長榮, 尹斗壽, 鄭彥智, 鄭惟一, 朴希立, 具忭, 南鳳年, 鄭密, 趙慶蘭, 安寬, 閔天符, 安敬賓, 李友直, 金應寅, 具思孟, 權世鵬, 南銓, 安容, 黃廷彧, 崔遇慶, 李忠範, 吳健, 鄭琢, 徐進德, 李齊閔, 尹淵, 崔弘儻이다.

하였다. 1566년 學正과 博士, 1567년 典籍·정언·예조좌랑·병조좌랑, 1568년 병조좌랑·정언·예조좌랑·호조좌랑·정언 등을 역임하였다. 특히 1568년 사간원 정언으로 재직할 때 國婚非禮의 논핵, 군주가 正心·納諫·齊家할 것을 주청하는 글을 올려 公道를 구현하고자 힘썼다. 그리고 1567년 명종이 승하한 뒤 실록 편수관에 임명되어 1571년 4월에 『明宗實錄』을 찬진하기도 하였다. 1569년 공조좌랑·예조좌랑·정언·공조좌랑·전적·헌납·직강·지평, 이듬해에 직강과 이조좌랑을 지내다가 8월에 어사 겸 災傷敬差官으로 호남에 나가 민정을 시찰하고 장계를 올렸다. 1571년 이조좌랑·부교리·이조정랑·예조정랑·지평에 임명되고 1572년 2월 이조정랑에 다시 임명되었으나 병을 이유로 사직하고 귀향하였다. 이후 장령·집의·사인·전한 등의 직책으로 여러 차례 불렀으나 나가지 않고 후학 양성에 매진하였다. 이때의 상황을 行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隆慶[明 穆宗 연호] 임신년(1572)에 선생께서 병으로 벼슬을 사직하고 남으로 돌아갔다. 하나의 작은 집을 짓고 물을 끌어들여 못을 만들었다. 못 가운데 연꽃을 심고 물고기를 길렀으며, 못가에는 소나무를 가꾸고 국화를 심었다. 頭流山의 만 겹 봉우리와 鏡湖의 천 구비 맑은 물결이 거처와 인접해 있어 아침저녁으로 오갔다. 일찍이 시를 짓기를 “술을 심어 구름까지 높이 솟음 기대하기 어렵지만, 국화 옮겨 손에 가득 향기가 여여쁘네. 멀리 있는 이를 꿈꾸다가 한밤에 문득 깨니, 연못의 푸른 연잎에 빗소리가 크구나.”라 하였는데, 대개 이로부터 말년의 계획으로 삼았다. 從遊하는 선비들이 날마다 모여들자 그 가운데서 함께 강의하고 토론하였다. 부르는 교서가 거듭 내려왔으나 병 때문에 나가지 않았다.⁷⁾

오건은 벼슬을 단념하고 講學으로 여생을 보내던 중 1574년 7월 7일 感疾에 걸려 끝내 일어나지 못한 채 7월 24일 사망하였다. 1606년에 정구 등이 산음현

7) 姜大濬, <有明故通訓大夫弘文館典翰知製教兼經筵侍講官春秋館編修官德溪吳先生行狀>(권7). 隆慶壬申, 先生以病謝仕南歸, 構一小軒, 引水爲池, 池中種蓮畜魚, 塘上栽松蒔菊, 頭流之萬壘峯巒, 鏡湖之千頃清淪, 起居相接, 朝夕管領, 嘗有詩曰, “栽松難待干雲秀, 移菊空憐滿手香, 半夜忽驚思遠夢, 綠荷池上雨聲長”, 蓋自此爲終老計也. 從遊之士, 日以盆集, 相與講討於其中, 徵書屢降, 而以病不赴. 오건의 시는 <贈天嶺倅>(권1) 중 5~8구 부분이다. 앞의 4구는 “病休三載亦恩光, 蒲柳端宜草野堂. 排闥山容青欲濕, 落階泉脈細生涼”이다.

에 서계서원을 건립하였으며 1677년에 사약을 받았다. 다음의 卒記는 오건의 삶과 지향을 잘 보여준다.

전 홍문관 典翰 吳健이 졸하였다. 오건은 어릴 때부터 성품이 端誠하고 견고하였는데, 11세에 부친의 상을 당했을 때 이미 효성으로 소문이 났고 장성하여 모친의 상을 만나서는 더욱 禮文에 독실하였다. 집안이 가난하여 학문에 뜻이 있어도 선생을 모시고 배우지 못했는데, 집안에 있는 『中庸』 1권을 수백 번 읽어 音訓이 익숙해진 뒤에 비로소 깊이 사색하며 전심으로 정밀을 기하였다. 그리하여 오래되어 의심나고 모르는 것이 차츰 없어진 다음에야 『大學』·『論語』·『孟子』로 옮겨갔는데, 그때는 공부하기가 매우 쉬웠다. 이에 先生·長者를 찾아가 강론하였는데, 요체가 있었으므로 李滉 이하 宿儒들이 모두 그가 정밀하고 깊어 미칠 수 없다고 칭찬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저명해져 현직에 등용되기에 이르렀다. 明廟[明宗]께서 승하하였을 때는 禮服으로 方喪三年을 하고 素食하였으니, 그 독실한 행실이 이와 같았다. 벼슬에서 물러난 뒤에 사람이 많이 아깝게 여겼으며 반드시 다시 기용하려고 잇따라 侍從職을 제수하였으나, 모두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시골에서 지낸 지 3년 만에 졸하니 나이는 54세였으며, 학도들은 德溪先生이라 불렀다. 그 뒤에 鄉人이 사당을 세워 향사하였다.⁸⁾

앞서 살펴보았듯이 오건의 학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은 여럿 있다. 어린 시절에는 부친과 숙부 世綱, 외삼촌 都良弼, 중년 시절에는 조식과 이황이 대표적이다.⁹⁾ 그리고 지기 또는 동방급제자인 지낸 盧禎, 黃俊良, 鄭琢, 奇大升 등을 들 수 있다. 오건은 이들과의 강론을 통하여 커다란 학문의 성취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그의 학문과 교육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熟讀과 思索에서 비롯된 自得之學이라 할 수 있다. 그는 『中庸』¹⁰⁾을 수천 번 읽어 체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전적들도 섭렵하였다.¹¹⁾ 다음의 언급은 師承보다 자득

8) 『宣祖修正實錄』 권8, 선조 7년 7월 1일(계유)조 기사.

9) 金孝元은 오건의 만사에서 “斯人自是應期生，積學精深慕道誠。雪立南冥開戶牖，詠歸陶谷謹規程。名如智異凌霄峻，心似鏡湖徹底清。文喪祗今驚木稼，不堪明月閉佳城。”라 하였다.

10) 후일 李端夏는 <讀中庸，有懷吳德溪先生，二絕>(『畏齋集』 권2) 제1수에서 “少時貧賤服田家，一卷中庸百讀過。字句章篇融會盡，諸經路脈更無遮。”라 하여 『중용』을 수백 번 읽어 字句와 章篇을 회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경전에도 막힘이 없게 되었다고 칭송하였다.

11) <行錄>(권7). 先生謂門弟子曰，吾於大學論語，則受之先親，周易則受之舅氏，此外

을 중시한 그의 학문 세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선생께서 일찍이 문하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고인이 ‘독서를 천 번 하면 그 뜻이 절로 드러난다’라 하였으니 經學은 師承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요체는 자기가 정밀하게 생각하고 익숙하게 읽는 데에 달려 있으니 두 가지에 공력을 다할 뿐이다. 너희들이 오로지 스승의 입만을 우러르고 대략 사색하지 않으며, 겨우 십여 번을 읽고 스스로 의심되는 바가 없다고 여긴다면 독서를 오래하면 할수록 더욱 의심이 있는 줄을 모르게 된다. 독서를 하면 할수록 더욱 사색을 한 연후에야 거의 의심되는 바가 없는 데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내가 평소에 이미 경험한 것이니 너희들은 소홀히 하지 말라”라 하셨다.¹²⁾

오건은 이러한 학문을 바탕으로 하여 좋은 계책을 올려 濟世救民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자신의 포부와 역량이 현실에 받아들여지지 않자 도를 밝혀 후학들에게 전수하다가 세상을 뜨고 말았다.¹³⁾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열정과 고민이 그의 시문에 어떻게 반영되었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시문학의 양상과 특징

오건 시문학의 양상과 특징을 살피기에 앞서 그의 문집의 간행 경위와 편차, 시문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오건의 문집인 『德溪集』은 18세기 전반에 8권 4책으로 간행되었으며,¹⁴⁾ 1829년에 年譜, 附錄, 補遺 2권을 합쳐

經史子集, 皆不師承, 只自看解, 弟子問, 何以能然乎? 先生曰, 十五歲前, 用功於中庸, 歲誦千餘遍, 得力爲多, 故看諸經史, 自然通解. 又曰, 吾於中庸, 則讀不知遍數, 大學則約千餘遍, 諸經史俱不下四五百遍.

12) <行錄>(권7). 先生嘗謂門弟子曰, 古人云讀書千遍, 其義自見, 經學不貴承師, 要在自己精思熟讀, 兩盡其功而已. 爾等專仰師口, 略不思索, 纔閱十餘遍, 自以爲已無所疑, 殊不知讀之愈久愈有疑, 而愈讀愈思, 然後庶幾至於無所疑矣. 此吾平生所已驗者, 爾等無忽焉.

13) 鄭述, <祭文>(권8). 獻訃謨於吾君, 救生民之憔悴也. 否者, 明道而授徒, 開後來之聽視也. 二者, 將必有一得焉.

14) 문집의 序跋이 없어 정확한 간년을 추정하기 어렵다. 河弘度(1593~1666)의 『年

재간행되었다. 1829년 柳壽春이 쓴 <年譜序>에 의하면 문집이 간행된 뒤 100여 년이 지났으나 연보를 편찬하여 인출하지 못한 것을 애석하게 여겨 諸家の 기술을 참조하여 연보를 편찬하고, 부록과 보유 2권을 붙여 다시 간행한다고 하였다.¹⁵⁾

재간본의 편차와 수록 시문의 편수는 다음과 같다. 권1에 詩 114수(次韻·原韻詩 3수 제외), 賦 5편, 表 3편, 권2에 敎書 2편, 祝文·祭文 31편, 권3에 疏箚 6편, 권4에 啓 53편, 권5에 辭狀 9편, 丁巳日記 1편, 권6에 延平問答質疑 1편, 書 11편, 序 1편, 論 3편, 策題 1편이 실려 있다. 권7과 권8은 外集으로 諸家가지은 行狀·行錄·遺事略·實跡大略·祝文·祭文·輓詞 등, 『年譜』 권1에 <年譜>, 권2에 輓詞와 祭文, 補遺가 수록되어 있다. 보유에는 시 14수가 있다.

권1과 보유에 수록된 詩型과 편수는 다음과 같다. 오언절구는 권1에 9제 11수, 보유에 4제 4수 등 합 13제 15수, 오언율시는 권1에 9제 14수, 칠언절구는 권1 48제 67수(차운·원운시 2수 제외), 보유 7제 8수 등 합 55제 75수, 칠언율시는 권1 18제 18수(원운시 1수 제외), 보유 2제 2수 등 합 20제 20수, 오언배율은 권1에 2제 2수 합 2수, 칠언고시는 권1 2제 2수 등 합 2수가 있다. 128수의 시편 중에서 칠언절구가 75수나 된다. 시는 영물시, 회인시, 유람시, 증별시, 만시 등 다양하다.

문의 경우 다양한 문체가 망라되어 있다. 그러나 조식 등에게 올린 편지와 제문 등 개인적으로 지은 글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작품은 관직에 있을 때에

譜』 1663년 기사에 “덕계 오선생의 연보를 편찬하고 이어 문집을 수정하였다.”라 하고 小註에 “이때 서계서원의 山長으로 있었는데, 산음과 함양 두 고을의 선비들이 刊役을 막 시작하려 하면서 마침내 문집을 이정하고 연보를 편찬해 달라고 청하였다”고 하였다. 이 기사에 의거하면 1663년 무렵에 문집이 간행되고 연보가 편찬되었겠지만 그렇지는 못하다. 『덕계집』에 수록된 <年譜序>와 <年譜跋>에 문집이 100여 년 전에 초간되었고, 연보를 처음으로 편찬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무렵에 문집과 연보의 편차가 시도되다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韓國文集叢刊 解題2』 「德溪集」 참조.

15) 柳壽春, <年譜序>(『德溪集』 「年譜」). 德溪先生文集, 刊行已至百餘年之久, 而年譜之編出, 迄未遑焉, 此實斯文之欠典也. 先生後孫與一鄉士林, 謀所以裒集爲譜, 屬壽春以編次之役, 既不敢辭, 謹就文集行狀中, 考其年條事實, 兼採一時諸賢所錄實蹟, 草成一篇, 又以知舊門人輓誄等篇次之, 又得先生詩若干首, 以爲補遺, 合成二卷. … (中略)… 幹其事者, 先生後孫思德, 鄉人李君奇一也.

지는 공용문자이다. 경기감사 金德龍과 충청감사 朴素立에게 내린 교서, 임금 이 社稷·厚陵·健元陵 등에 제사할 때 내린 祭祝文, 李滉 등에게 내린 賜祭文, 정언 등으로 있을 때에 임금께 올린 疏筭와 啓文, 관직을 사직할 때 올린 상소 등이 대부분이다. 국가의 공용문서를 다수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오건의 문장이 당대에 높이 평가받았음을 알 수 있다.¹⁶⁾

본 장에서는 각체를 망라하고 다양한 내용이 담긴 오건의 시문 중에서 詩賦를 중심으로 하여 특징적인 부면을 추출하여 세 가지 범주, 즉 事物의 인식과 存養의 자세, 世事的 불평과 歸去來의 지향, 離合의 현장과 知人에의 권면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세 가지 층위는 학자·관인·문인으로서의 오건의 삶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면서도 그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현실을 어떠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는지, 나아가 이러한 부분들을 문학적으로 어떻게 형상화하였는지에 대한 이해의 단초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1. 事物의 인식과 存養의 자세

오건은 매화, 달, 버들, 오동, 눈, 물, 꿩 등 주변의 물상을 제재로 하여 많은 詩賦를 지었다. 그는 이러한 주변 사물을 보고서 그 본질을 탐구하는 한편 그것을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存心養性하는 계기로 삼았다. 특히 <活水>, <不誠無物>, <金籐>, <收野梅>, <澤雉> 등 5편의 賦에는 성리학적 인식과 관물의 태도가 잘 표현되어 있다. 이 중에서 <活水>에서는 물을性に 비유하여 性은 물처럼 깨끗하고 담박하지만 물이 일정한 형태가 없이 유동적이듯이 性도 잘 다스리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收野梅>에서는 겨울의 찬 기운에 굴하지 않고 산 속에 홀로 피어 은은한 향기를 풍기는 매화의 高潔함을 칭송하였다. <澤雉>에서는 못과 산에 있는 꿩을 보고 욕심을 적게 내면 性命을 보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잃는다는 養生의 법에 대하여 설교하였다. <澤雉>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 <吳德溪實跡大略>(『藥圃集』 권4)에서 “出入臺諫，積有歲月，一時啓筭，多出其手”라 하였고, <吳德溪傳>(『覺齋集』 권1)에서 “其制表，一時所宗”이라 하였다.

드넓은 천지에 서서 物我의 生生之理를 궁구하네.
 자연의 오묘함을 따라서 정에 맞게 기르는 바에 순응하네.
 하늘이 부여한대로 한가로이 지내면서 졸박으로 성명을 보존하네.
 산의 자락과 못의 가운데서 너 꿩이 절로 방일함이 좋구나.
 생명은 각각 정한 분수 있으니 그칠 바를 알아서 마땅히 그치네.

...(중략)...

아! 양생의 묘한 방책이여, 진실로 사람과 사물이 일치하네.
 욕심을 적게 하여 고요히 거하면 시종토록 성명을 온전히 한다네.
 어찌하여 혼탁한 세속에서 외물에 성정을 주리게 하리오?

...(하략)...

立天地之浩浩 究物我之生生 因自然之妙有 順所養於適情
 任天賦而閑放 顧性命於至拙 山之阿兮澤之中 嘉爾禽之自逸
 信有生各有定分 知所止兮當止 ... (中略) ...
 噫養生之妙術 諒人物之一致 緣寡欲而居靜 全性命於終始
 夫何世俗之混濁 餒性情於外物 ... (下略) ...¹⁷⁾

꿩이 비록 배가 고프더라도 산과 못에 살면서 곡식을 탐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받은 성명을 온전하게 할 수 있지만 곡식을 탐하여 인세에 내려오면 주살이나 그물의 재앙을 입게 된다. 따라서 寡慾은 양생할 수 있지만 過慾은 살생을 부르게 된다. 인간 세상도 이와 동일하기 때문에 자신의 천성에 맞게 살아야지 지나친 욕심을 부려 부와 권력 등을 탐하면 성명을 손상시키게 됨을 경계하고 있다.

다음은 눈과 그 속에 핀 매화를 읊은 <雪中梅>다.

천 점의 눈꽃과 몇 그루 매화꽃이
 난형난제처럼 한결같이 펼쳐졌네.
 두 개의 淸眞함이 촌로에게 알맞으니
 셋이 짝을 이룬 것이 어찌 李白 뿐이라?
 六花千點數枝梅 難弟難兄一樣開
 兩箇淸眞宜野老 成三何必謫仙杯¹⁸⁾

천지를 뒤덮은 새하얀 눈과 그 속에 피어난 흰 매화, 어느 것이 더 좋고 덜

17) <澤雉>(권1).

18) <雪中梅>(권1).

좋은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눈앞에 펼쳐져 있다. 눈과 매화 모두 정갈하고 순결한 물상이다. 시인은 눈과 매화의 淸眞함이 가장 마음에 든다. 李白이 <月下獨酌>¹⁹⁾에서 “꽃 사이에서 한 병의 술을 홀로 마시니 친한 이가 없구나. 술잔 들어 밝은 달을 맞이하니 그림자를 마주하여 세 사람이 되었구나(花間一壺酒, 獨酌無相親. 舉杯邀明月, 對影成三人)”라고 읊은 시구를 연상하며 이백만이 운치를 누리는데 아니라고 하였다. 자신도 눈과 매화를 마주하여 成三하는 흥취를, 그리고 눈과 매화와 동일화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동지가 돌아오자 꽃망울 먼저 맺혔는데
 찬 날씨에 대적하여 피려는가 아닌가?
 따스한 빛에 늦은 절개 스러진다 하지 말라,
 정신은 오히려 눈바람에서 오나니.
 芳心先占一陽回 欲敵天寒開未開
 莫道和光淪晚節 精神猶自風雪來²⁰⁾

위의 시는 <二月梅>이다. 초목이 시들고 꽃을 피우지 않는 冬至에 꽃망울을 맺은 매화, 혹독한 날씨를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매화는 절개를 상징한다. 그러다가 따스한 봄이 되면 매화의 꽃떨기는 땅으로 떨어진다. 만화방창하는 봄날에 매화가 비록 지더라도 매화의 참된 정신은 매서운 겨울의 눈바람을 이기고 피는 데에 있다. 매화의 이러한 물성을 내면화하는 시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오건이 <用金壯元敬夫宇宏咏雪韻三首>²¹⁾에서도 松柏의 절조를 체화하여 절차탁마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도 이러한 의식과 맞닿아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건에게 있어 주변의 심상한 物事는 존재하는 대상 자체로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 物事의 본질 내지는 정신을 체득하고, 그것을

19) 李白, <月下獨酌>. 花間一壺酒, 獨酌無相親. 舉杯邀明月, 對影成三人. 月既不解飲, 影徒隨我身. 暫伴月將影, 行樂須及春. 我歌月徘徊, 我舞影零亂. 醒時同交歡, 醉後各分散. 永結無情遊, 相期邈雲漢.

20) <二月梅>(권1).

21) <用金壯元敬夫宇宏咏雪韻三首>(권1) 중 제1수에서 “맑은 대낮 찬 창에 그대 온 것 반가운데, 밤이 되면 수많은 눈과 달빛 보세나. 일과 마음 송백과 부합되길 기약하니 같고 닭아 영원히 티끌이 없었으면(寒窓淸晝喜君過, 待夜相看雪月多. 心事已期松柏契, 切磋須復永無瑕)”라 읊었다.

통하여 자신의 心性을 存養하는 적극적인 대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은 16세기 도학자들의 사물 인식, 나아가 시문을 통한 物性和 道體를 구현하려는 의식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世事の 불평과 歸去來의 지향

오건은 公道와 文治가 현실 속에서 구현되기를 희망하고 노력하였다. 자신이 학문을 하고 벼슬에 나간 것도 왕도정치를 구현하려는 바람에서 출발하였다. 여러 차례 進言을 올려 군주를 바르게 하고, 이를 통하여 정치를 바로잡아 민생의 피폐함을 구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의 直言은 오히려 현실에서 질시를 당하거나 배척을 받기도 하였다. 匡世濟民의 포부가 실현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세상에 대한 不平之心이 생기고 이 때문에 전원에 돌아가 自樂하며 살고자 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石谷 申大壽가 덕천에 방문하였을 때 지은 <醉贈石谷>이다.

천지의 만물이 나에게 무엇이라?
 오늘 밤 의미 많음 바야흐로 알겠네.
 홀로 깨어 잘못 죽은 것 물을 이가 없으니
 천지를 부양하며 한바탕 크게 노래하네.
 天地萬物於吾何 方信今宵意味多
 獨醒枉死無人問 俯仰乾坤一浩歌²²⁾

술기운이 한껏 오르자 천지의 만물이 대수롭지 않게 보인다. 그래서 ‘천지의 만물이 나에게 무엇이나?’라고 호기를 부리는 것이다. 이러한 호기가 하나의 객기일 수도 있지만 시인에게서는 하나의 의미 있는 새로운 자각이다. ‘獨醒枉死’는 굴원을 가리킨다. 굴원은 혼탁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깨끗함을 지키려다 쫓겨나서 불행하게 죽었다. 현실에 용납되지 않는, 아니 혼탁한 현실을 거부하다 쫓겨나 죽은 굴원의 처지를 생각하니 세상이란 불합리하고 불의한 것이다. 세상은 불합리하지만 잘 바뀌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을 강개하면서 세상을 傲視하는 것이 유일한 방편이다. 그래서 시인은 한바탕 불평의 노래를 부르

22) <醉贈石谷>(권1).

며 울분을 해소하고 있다.

다음의 <偶吟>도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을 표출하고 있다.

세속 마음 씻어버려 남은 것이 없는데
 機事마저 모름지기 술로 제거해야지.
 후회되라, 젊은 시절 한 번 잘못하여
 용을 잡는 계책으로 책에만 빠진 것이.
 塵心消遣已無餘 機事兼須酒破除
 却悔少年成一錯 屠龍爲計只耽書²³⁾

이 시는 1564년 무렵 덕천 西溪에 머물 때에 지은 것이다. 그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세속에 대한 욕망, 출세에 대한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屠龍은 뜻이 커서 현실에 쓰이지 못하거나 현실에 쓸모없는 계책을 말한다. 젊은 시절 커다란 포부를 지니고 독서하였지만 그 계책은 현실에 쓰일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된다. 그 길은 바로 학문에의 전념이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1562년 여름 병으로 성주훈도를 사임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학문에 전념하는 한편 도산으로 이황을 찾아가 『近思錄』 등의 책에 대하여 질의하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현실에 대한 강개는 출사하였을 때 더욱 증폭되고 귀거래 의지로 나타나게 된다. 다음은 서울에서 머물던 1565년 8월 22일에 著作 都希齡에게 준 <洛中贈都著作>이다.

타향살이 벼슬길에 가을이 서글픈데
 고향의 친한 벗은 아는가 모르는가?
 세상일은 부운처럼 변화가 많아서
 석양에 머리 굽으며 홀로 누대에 오른다.
 宦情羈思共悲秋 鄉國親朋記得不
 世事浮雲多變態 夕陽搔首獨登樓²⁴⁾

23) <偶吟>(권1).

24) <洛中贈都著作>(권1).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벼슬살이를 하노라니 객수가 깊게 자리하고 고향에 있는 벗들이 그림자만 하다. 당시에 오건을 비롯한 유생들은 普雨를 죽이라고 상소를 올렸으나 임금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바른 간언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무기력함과 세상에의 염증이 강하게 일어났을 것이다. 뜬 구름처럼 변화무쌍한 세상이 부질없기만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간절하다. 悲秋와 登樓는 절기의 변화와 사향 때문만이 아니라 宦海의 질곡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奉贈康陵參奉金慶老>에서도 “어느 날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한식날 봄바람에 꿈을 꾸며 허비하네. 강남의 고운 풀에 봄이 다시 다하는데, 그대 만나 예전에 놀던 때를 말했으면.(鄉關何日定歸期, 寒食東風費夢思. 芳草江南春又盡, 逢君只道舊遊時)”라고 하여 고향에 빨리 돌아가고픈 마음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관직 생활에 얽매어 있다가 1572년이 되어서야 완전한 귀거래를 실현하였다.

3. 離合의 현장과 知人에의 권면

오건의 시편 중에서 수창시 내지 증답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그는 知人들을 직접 만나 서로 시를 주고받기도 하였고, 때로는 지인과 헤어지거나 멀리 있는 지인을 그리면서 증시와 답시를 지었다. 이러한 시편 속에는 만남의 기쁨과 헤어짐의 아쉬움, 상대의 처지에 대한 이해와 그들에 대한 권면이 담겨져 있다.

다음은 성주훈도로 있을 때 제자 鄭述에게 준 <星學贈學子>²⁵⁾이다. 星學은 성주향교이고, 學子는 寒岡 정구이다. 오건은 정구가 밤에 邵雍의 <清夜吟>을 읊조리자 소옹의 首尾吟體²⁶⁾를 본떠서 시를 주었다.

堯夫가 시 읊기를 좋아한 것 아니지만

25) 詩題 아래에 “學子卽鄭寒岡也, 寒岡夜誦清夜吟, 先生以詩贈之”가 附註되어 있다.

26) <首尾吟>은 소옹이 安樂窩에 머물면서 6·7년에 걸쳐 지은 작품으로 그의 나이 60세 때(1070년)에 완성하였다. 七言詩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每篇의 첫 구와 마지막 구가 “堯夫非是愛吟詩”로 되어 있어, 후대에 首句와 末句가 같은 시형을 首尾吟體라 부르게 되었다.

밝은 달이 깨끗함을 다만 좋아했다네.
 남긴 시로 부질없이 玩月하지 말고
 清意를 고요히 사색토록 하여라.
 堯夫非是愛吟詩 只愛虛明洒落時
 莫把遺詩空玩月 好將清意靜中思²⁷⁾

소옹(1011~1077)은 송의 문신이자 학자로 堯夫는 그의 字이다. 그는 <清夜吟>에서 “하늘 가운데로 달이 이르고 수면 위로 바람이 불어올 때. 한결같이 맑은 뜻을 헤아려 아는 이가 적다네(月到天心處, 風來水面時. 一般清意味, 料得少人知)”라 읊었다. 이 시는 자연의 흥취를 읊은 듯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연에 내재한 도의 體用을自得한 즐거움이 담겨져 있다. 오건은 정구가 <清夜吟>을 읊조리자 소옹은 음풍농월하는 시작을 즐긴 것이 아니라 달의 깨끗함을 좋아하였으니, 소옹이 시에서 언급한 ‘清意’를 고요히 사색하여 체득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다음은 具思孟이 1569년 7월 11일 황해감사에 임명되었을 때 그를 전송하며 지은 <送具思孟觀察黃海>이다.

海西 일 말하는 것 들으니
 벼슬아치 자주 와서 지탱하기 어렵다네.
 벼들 비어 매가 뼈에 사무치고
 말이 죽어 길에 먼지 날리네.
 구활함에 어찌 대책 없으리요?
 편안하게 할 사람이 있다네.
 부모 떠남 한탄하지 마시고
 장차 고을 백성 보호하시게.
 聞說海西事 難支冠蓋頻
 機空篋入骨 馬斃路飛塵
 救活寧無策 便宜會有人
 莫牽離膝恨 且保一邦民²⁸⁾

수련에서는 관리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 황해도 백성들의 고통이 심함을 말

27) <星學贈學子>(권1).

28) <送具思孟觀察黃海>(권1).

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의 고통은 관리가 자주 바뀌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부임하는 관리마다 가렴주구를 일삼기 때문이다. 흉년이 들어도 세금 독촉을 심하게 하니 백성들은 농토와 집을 버리고 유리걸식한다. 그래서 벼를 마저 비고 길에 먼지만 날리지만 세금을 닥달하는 매질만이 난무한다. 그러나 그대가 바로 백성들을 구출할 적임자이니 가서 선정을 베풀라고 권면하고 있다. 구사맹이 동방급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컸을 것이다.

다음은 金宇宏(1524~1590)이 고향으로 부모를 뵈러 갈 때 전송하며 준 <送金敬夫歸觀南鄉>이다.

內翰이 남으로 가 멀리 부모 위로하니
 碧桃花 향기롭고 꼬까옷이 새롭겠지.
 丹心으로 청명한 임금을 받들었지만
 채필을 휘둘러 사활을 정한 이가 있었네.
 한 때의 盛衰는 진실로 작은 일인데
 천고의 시비에 몸을 온전하게 하였네.
 무심한 조화옹을 모름지기 살펴보라
 비 뿌리고 바람 분들 어찌 원망하리요?
 內翰南歸遠慰親 碧桃香濕彩衣新
 丹心捧向清明日 綵筆揮來殺活人
 榮悴一時眞細事 是非千古見全身
 無心造化須看取 雨灑風搖孰怨恩²⁹⁾

김우평이 정치적 사건으로 인하여 체직된 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자 그를 위로한 시편이다. 고향에 돌아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지만 임금께 충정을 바치다 시비에 휩쓸려 쫓겨가는 신세, 그러나 목숨을 보전하였으니 다행이라 하였다. 조물주가 비를 뿌리고 바람을 불게 한들 그것을 원망할 수는 없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충정이 도리어 시비가 되어 억울하게 물러나게 되지만 安分受命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이처럼 오견은 지인들에게 준 시편에서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더욱 분발하도록 권하고 있다.

29) <送金敬夫歸觀南鄉>(권1).

IV. 결론

오건은 정독과 사색을 통하여 그의 학문을 다지는 한편 조식·이황 등의 宿儒에게 질정하고 知人들과 강론을 통하여 학문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했다. 자득을 중시한 그의 학풍은 人·物·事를 접할 때도 회의와 窮理를 거쳐 내면화·주체화하였다. 그는 대상을 궁구하여 자아의 성찰, 세인의 경계와 권면 등의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시문의 경우에도 이러한 입장은 견지된다. 그의 시문은 각체를 망라하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그 저류에는 物事の 올바른 인식과 자아 성찰, 나아가 세상의 匡正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오건의 詩賦에는 事物의 인식과 存養의 자세, 世事的 불평과 歸去來의 지향, 離合의 현장과 知人의 권면 등이 지배적인 주류를 이룬다. 따라서 그의 시문은 성찰적이면서도 경세적인 측면을 아울러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후대의 詩文選集이나 詩話集에는 오건의 시문이 선발되거나 관련된 기록이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選者나 編者의 감식안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의 문집이 18세기 전반에 초간되고, 19세기 후반에 중간되었던 데에서 그 根因이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오건이 이룩한 문학 세계는 문학과 비문학의 경계선상에 놓인 작품이 많이 있다. 그것은 그가 시인이기보다는 학자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아 성찰적이면서도 경세적인 의식을 담지하는 觀物·說理的인 詩賦를 많이 창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이 그의 시문을 난해하게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시문을 창작할 때 일상과 주변의 사물을 제재로 하는 한편 대상을 體化하여 평이하게 쓰기 때문이다. 그의 시는 대체적으로 볼 때 전고를 많이 쓰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성찰에 바탕하여 작품을 짓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것은 스승인 조식이 시상을 전개할 때 직절하게 썼던 것과도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오건의 생애와 교유 양상, 시세계의 특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향후 조식, 이황, 노진, 하향, 정탁 등과의 학문적·문화적 교류의 양상과 특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16세기 영남학파의 학문과 문학세계를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주제어 : 오건, 조식, 신중한 독서와 사고, 事物의 인식과 存養의 자세, 世事の 불평과 歸去來의 지향, 離合의 현상과 知人에의 권면

참고문헌

- 吳健, 『德溪集』, 『韓國文集叢刊 38』, 민족문화추진회, 1989.
- 曹植, 『南冥集』, 『韓國文集叢刊 31』, 민족문화추진회, 1989.
- 李滉, 『退溪集』, 『韓國文集叢刊 29-31』, 민족문화추진회, 1989.
- 金麟厚, 『河西集』, 『韓國文集叢刊 33』, 민족문화추진회, 1989.
- 李端夏, 『畏齋集』, 『韓國文集叢刊 125』, 민족문화추진회, 1993.
- 『국역조선왕조실록』 cd-rom, 서울시스템(주).
- 金康植, 「德溪 吳健의 학문 경향과 현실 개혁 방안」, 『朝鮮時代史學報』 20집, 조선시대사학회, 2002.
- 史載明, 「조선중기 德溪文人の 形成과 講學」, 『南冥學研究』 17집,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04.
- 설석규, 『南冥學派 政治哲學 研究』, 남명학연구원출판부, 2001.
- 申炳周, 「남명 조식의 학풍과 남명문인의 활동」, 『남명학연구논총』 3집, 남명학연구원, 1995.
- 신병주, 『남명학과와 화담학과 연구』, 일지사, 2000.
- 梁基錫, 「德溪 吳健 漢詩 연구」, 경상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1.
- 吳珪煥, 「德溪 吳健의 人間像」, 『南冥學研究論叢』 제2집, 남명학연구원, 1992.
- 李相弼, 「德溪 吳健의 『歷年日記』 小考」, 『南冥學釜山研究院報』 7집, 남명학부산연구소, 1997.
- 李相弼, 「南冥學派의 形成과 전개」, 고려대 박사논문, 1998
- 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영남대출판부, 1995.
- 李貞淑, 「德溪 吳健의 教育思想 研究」,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1993.
- 鄭羽洛, 『남명 문학의 철학적 접근』, 박이정, 1998.
- 정우락, 「『德溪集』解題」, 『남명학연구』 10집, 경상대남명학연구소, 2000.
- 崔喆鉉, 「吳德溪의 生涯와 思想」, 경상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5.
- 崔海甲, 「吳德溪의 政治思想」, 『晋州文化』 제8호, 진주교육대학, 1988.
- 韓相奎, 「德溪 烏巾의 선비精神」, 『南冥學研究論叢』 제2집, 남명학연구원, 1992.

<Abstract>

A Study on the Literary World of Deok-Gye(德溪) Oh-Geon(吳健)

Kim, Nam-Ki

This thesis is an inquiry into life and the literary world of Deok-gye Oh, geon(1521~1574). He tread the path of learning through a careful reading and thinking, in addition he was studying from Jo, sik(曹植) and yi, hwang(李滉) etc. He was taking a serious view of self-acquirement, that he internalized the object through skepticism and consideration.

His poems were various, but he pointed up right awareness of worldly affairs and introspection of the ego, further reform of the world. The main current of his poems were recognition of matters and attitude of nature cultivation, discontent of worldly affairs and intention of homecoming after one's resignation from a government office, the spot of separation and inducement of an acquaintance. His poems influenced to the literary flow of pursuing the practical and plain tendency of Yongnam school(嶺南學派).

Key Words : Oh geon, Jo sik, a careful reading and thinking, recognition of matters and attitude of nature cultivation, intention of homecoming, inducement of an acquaintance